

지구촌 양계뉴스

●●● 미국

2012년부터 육류제품에 영양정보 표시제도 실시

미국 정부는 오는 2012년부터 육류제품에도 영양정보 표시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그리고 닭고기를 비롯한 가금류 등 40여 개 육류제품을 대상으로 열량, 지방의 열량, 전체 지방 함유량, 콜레스테롤, 나트륨, 단백질 함유량 등이 상세하게 표시된다.

연방정부 관계자는 육류에 대한 영양정보 표시가 미국인들이 육류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건강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툼 빌색 농무장관은 “육류 제품에 대한 영양정보 표시는 최근 비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열량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 아주경제

●●● 일본

천연기념물 두루미 도래지서 AI 발병

일본에서 특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흑두루

미 최대 도래지인 가고시마(鹿兒島)현에서 고병원성인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해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22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가고시마현 이즈미(出水)시에서 21일 죽은 채 발견된 4마리의 흑두루미 가운데 한 마리가 고병원성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다른 3마리도 간이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 가고시마현은 일본 최대의 닭 사육 지역이기도 해 고병원성 AI가 확산하지 않을까 주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이후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오리, 시마네(島根)현에서 닭, 돗토리(鳥取)현에서 고니 등의 AI 감염이 확인된 점으로 미뤄볼 때 대륙에서 건너온 조류가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고시마현은 조류인플루엔자 감시구역 내에 있는 양계장 161개소에 대한 긴급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두루미는 방역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살처분과 이동제한 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를 둔 조치로 가축만 대상이다.

- 도쿄=연합뉴스

●●● 홍콩

└ 일본산 가금육 제품 수입중단

홍콩 식품안전청(The Centre for Food Safety)은 2010년 12월 3일 일본 수입산 가금류와 가금류가공 제품에 대한 수입을 향후 다른 통지가 있을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일본 Yasugi City 등에서 H5 인플루엔자가 발병하면서 내려진 것으로 타국가의 유사한 사례들의 정보를 더 수집하여 현 상황을 더 자세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 홍콩 식품안전청

●●● 중국

└ 캐나다산 가금류 수입 금지

중국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국(국가 질검총국)이 캐나다 Manitoba에서 최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캐나다산 가금류 및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지난해 12월 17일 밝혔다.

세계 동물 위생 기구(OIE) 통보에 따르면 캐나다 Manitoba의 한 칠면조 농가에서 H5N2형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중국 질검총국은 공고 발표일부터 캐나다산 가금류 및 관련 제품 수입을 금하며, 그리스산 가금류 및 관련 제품 수입 금지령은 해제한다고 밝혔다.

- The Wall Street Journal 중문판

●●● 美 옥수수 사료 반덤핑 조사

올 1월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 당국이 미국산 옥수수 사료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 두 나라 사이의 무역마찰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 수입되는 옥수수 사료(distillers dried grains ; DDG)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미국산 닭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또 다시 미국에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1월 19일 후진타오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미국측의 위안화 절상 압력 등 무역 전쟁에서 기선 잡기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DDG 대량 생산을 통해 덤핑으로 저가공세를 펴고 있다고 판단, 이번 조치를 통해 덤핑의 정도와 중국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쳤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범위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이며 2007년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WSJ는 조사가 2011년 12월 28일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2012년 6월 28일까지 더 연장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DDG는 옥수수가 에탄올로 전환될 때 나오는 부산물로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데다가 가격도 저렴해 중국에서 가축 사료로 인기가

높다. 특히 미국산 DDG가 중국산 DDG보다
 톤당 45~50달러 정도 저렴해 중국은 미국으
 로부터 매년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

미국도 DDG를 주요 무역 품목으로 간주하
 고 중국이나 유럽으로 DDG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인터넷한국일보

●●●독일

닭사료에서 다이옥신 검출

독일 전역의 1,000개 이상의 양계 농장에
 공급된 사료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돼 보건당국
 이 서둘러 판매를 금지했다. 또 8천마리 이상
 의 닭들을 도살 처분했다.

독일 보건당국은 1월 3일(현지시간) 북부 니
 더작센주와 쉘레스비히홀슈타인주, 서부 노르
 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양계농장들을 추가로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다.

독일 뉴스 통신 DAPD는 이날 검찰이 닭 사
 료 생산자들을 소환해 이들이 다이옥신으로
 오염된 재료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
 라고 보도했다.

한편 서부 죄스트에서는 닭 8천여 마리에
 살처분을 지시했다. 동독 지역 당국에 따르면
 이미 55톤 분량의 의심스러운 사료들이 닭들
 에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 베를린(독일)=AP/뉴시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에 불량 닭고기 공급으로 인종차별 논란

과거 흑인 차별정책으로 악명이 높았던 남
 아프리카공화국에서 최근 닭고기 판매를 둘러
 싸고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BBC에 따르면 남아공 양
 계업자들이 대형 슈퍼마켓에서 유통기한이 지
 난 닭고기를 수거해 적당히 세척한 뒤 흑인 거
 주지역의 구멍가게에 다량 유통시켰다.

문제를 처음 제기한 남아공 공산당의 블레
 이드 은지만데 당수는 “남아공 흑인의 80%가
 소규모 가게에서 식품을 구입하고 있고 이는
 흑인들이 썩은 고기를 사먹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면서 “흑인들에 대한 모욕이고 인종차
 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계업자들의 행태에 대한 정부의 조사를 촉
 구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남아공 양계업협회의 케
 빈 로벨 대변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일부 재활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합법적이고
 모든 과정이 엄격한 안전 기준하에 진행됐다”
 면서 “인종 차별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활용된 닭고기가 백인 부유층 거주
 지역의 대형 슈퍼마켓에는 공급되지 않고 있
 음을 시인했다.

- 매일경제